

[2023년 혁신네트워크 포럼 분과별 보고서]
글로벌 연계 · 정책 특별분과

2024. 6.

글로벌 연계 · 정책 특별분과

분과 위원장 : 구자현

위원

고영주, 구중희, 김영환, 김재진, 박병관,
박찬수, 배현민, 서주원, 이창근, 조훈제

목 차

[중소기업 혁신네트워크 포럼 글로벌 연계·정책 특별분과 활동 보고서]

A. 추진 경과

1. 분과위원 구성
2. 운영 경과
3. 과업의 범위 및 논의 의제

B. 정책 의제

1. 중소기업 글로벌 기술협력 증진 방안
2. 글로벌 진출과 금융 규제 : 볼커룰과 플립 이슈
3. 중소기업 개발협력(ODA) 참여 확대 방안

<참고문헌>

A. 추진 경과

1. 분과위원 구성

연번	성 명	소 속
1	고영주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PD
2 위원장	구자현	■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	구중회	■ LB인베스트먼트 글로벌본부 전무
4	김영환	■ STEPI 혁신기업연구단 연구위원
5	김재진	■ 이오플로우 대표
6	박병관	■ 프라운호퍼한국연구소 대표
7	박찬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	배현민	■ KAIST 전자공학과 교수
9	서주원	■ 이디리서치 대표
10	이창근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1	조훈제	■ 액트너랩 대표

2. 운영 경과

- (배경 및 필요성)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등 급박한 경영 환경 변화 속에서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대응전략 모색
 - 변화하는 기술/시장 환경에 부응하는 새로운 중소기업 기술지원정책 발굴 필요
 -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의 글로벌 연계·정책 특별분과를 통해 수월성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R&D의 글로벌화 등 전략 수립, 정책의제 발굴 등 추진
- 총 5회의 분과회의를 통해 중소기업 글로벌화 현황 파악 및 정책 개발

(1) Kickoff 모임

- 일시 및 장소 : 2023년 7월 13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 2층 그리니치홀)
- 주제 :
 -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 및 분과위원회 추진계획 공유, 분과위원회 세부 주제 선정 및 운영 방안 논의 등
 - “(가칭)공급망 위기 대응 및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마련을 위한 국제 R&D 협력 기술협력 활성화, 기술무역(기술수출) 확대 등 정책제안

(2) 1차 모임

- 일시 및 장소 : 2023년 8월 10일 (서울 팁스타운 S1 해성빌딩 5층 교육장)
- 발표 : 국제 공동 R&D 소개 및 중소기업 (서주원 이디리서치 대표)

(3) 2차 모임

- 일시 및 장소 : 2023년 9월 7일 (서울 팁스타운 S1 해성빌딩 5층 교육장)
- 발표 : VC 입장에서 볼거릴 및 플립 이슈 (구중희, LB인베스트먼트 글로벌 본부 전무)

(4) 3차 모임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0월 26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3층)
- 발표 : KAIST 창업 프로그램 소개 (배현민, KAIST 전자공학과 교수)

(5) 4차 모임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1월 23일 (서울 팁스타운 S1 해성빌딩 5층 교육장)
- 발표 : 국제개발협력과 한국, 기업 (이창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6) 5차 모임 (포럼 분과교류회)

- 일시 및 장소 : 2023년 12월 8일 (코트야드메리어트 판교 8층)
- 발표 : 분과별 포럼 활동 및 경과보고 (김영환, STEPI 연구위원)

□ 향후 계획

- 포럼을 통한 전문가 네트워크 심화·확대
- 정책 구체화 및 추가 발굴
 - 중소기업 GVC 참여 확대 및 관련 규제 개선
 - 중소기업 글로벌 공동 R&D 확대 및 구체화
 -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술혁신 관점의 지원 수단 발굴 등

3. 과업의 범위 및 논의 의제

(1) (Kickoff) 분과의 논의 주제 및 키워드 발굴 (' 23.7)

□ (주제) 글로벌 기술 규제, 글로벌 경제 협력을 위한 중기 정책 다음과 같은 주제와 키워드를 제시

- (1) 스타트업의 글로벌진출
- (2) 글로벌진출에 대한 규정, 기술 규제 문제
- (3) 전략물자관리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과 준비
- (4) 협회나 연합에 대한 지원 제도로의 수출(ODA사업)
- (5) 기업의 인증제도, 제도적인 기업지원
- (6) Geopolitics 관점에서의 글로벌 포지셔닝

□ (키워드) 도출된 주제에 해당하는 키워드(세부 주제)는 다음과 같음

- 글로벌 R&D 연계 활성화 방안
- 소부장 투자아이템 활성화 방안
- VC와 연계를 하면서 해외 진출 중국시장 타켓, 아세안시장 타켓
-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도움_학교랑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안
- 유행에 따라가지 않는 연구필요, 특정분야 R&D 지원 필요(Global optimization)
- 글로벌 SI를 통한 마켓진출
- 미국으로의 반도체 인재유출, 해외 반도체 컨퍼런스
- 연구를 많이 했는데도 그다음 스텝인 사업화, 상업화로 연결이 안되는 어려움
- 글로벌 진출을 위한 규제문제

- 중소벤처기업의 국제 공동 R&D에 대한 경험 쌓는 부분 필요
- 아세안시장 타겟팅하여 기술협력하는 모델 필요
- 글로벌 해외진출용 펀드, VC와 협업하여 중국시장 진출
- 과학기술 ODA 사업, 기업의 인증제도
- geopolitics 안에서의 우리나라의 경쟁력있는 포지셔닝 필요

□ 혁신 네트워크 포럼 분과별 미팅을 통해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 논의

< 발표 주제 >

	발표/논의 주제	발표자
2023.8.10	▷ (R&D) 국제공동 R&D 소개 및 제언	서주원 이디리서치 대표
2023.9.7	▷ (금융) VC 입장에서의 볼커룰 및 플립 이슈	구중희 LB 인베스트먼트 전무
2023.10.26	▷ (교육) KAIST 창업 프로그램 소개	배현민 KAIST 교수
2023.11.23	▷ (ODA) 국제개발협력과 한국, 기업	이창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 (1차) 국제공동 R&D 소개 및 제언(' 23.8)

□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산업부) 현황

-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은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과 국제협력기반구축 사업 등의 2개로 구분되어 수행
- 양자협력 국가: 터키, 영국, 체코, 독일, 캐나다 등
- 전략기술형 중 글로벌 협력거점형으로는 미 존스홉킨스대(바이오), 카네기멜론대(AI), 벨기에 IMEC(반도체), 독일 프라운호퍼(소재부품) 등과 협력
- 유럽 최대의 글로벌 기술사업화 네트워크인 EEN의 한국 컨소시엄을 운영(산업부/KIAT 주관)

□ 주요 논의

- 기업들의 국제 공동 R&D의 성과 제고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중소기업에서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가 초기 정책지원의 방향성이 되어야 할 것임.
 - 초반 IP 이슈에 매몰되어 협력이 논의에만 그치고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적 불확실성을 먼저 제거해야 실질적인 국제 협력이 가능할 것임
-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미국시장과 벤처캐피탈을 엮어서 지원한다면, 산업부 국제협력 사업과의 차별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스타트업의 아시아(일본) 시장지출을 위해 자본·금융시장을 연계시킬 필요가 있으며, 동남아시아 진출을 위해 중소기업 ODA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

□ 정책 제언

- 산업부의 에너지 국제공동연구사업, MIT ILP 연계 등 참조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 수립 및 발표 예정)
- 중기부 투자연계형 R&D(해외위탁연구, 고위험·고성과 R&D)

<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구조 >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은 국제공동기술개발 사업과 국제협력기반구축 사업 등 2개로 구분되어 수행

내역사업	목적	협력유형 및 내용	
국제공동 기술개발	원천기술 습득, 해외시장 진출,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양·다자간 국제공동R&D 지원	다자공동	유레카, 유로스타, Horizon Europe, 메라넷
		양자공동	G2G 양자협력 14개국 대상
		전략기술	협력거점형, 수요연계형, 기술도입형
국제협력 기반구축	국내외 산학연간 기술협력 수요 발굴 및 파트너 탐색 등을 지원 하여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	해외기술협력거점, 기술협력플랫폼 등	

국내 중소기업들의 주요 Target 프로그램

(2) (2차) VC입장에서의 볼커룰 및 플립 이슈(' 23.9)

□ 현황 및 애로사항

○ 플립의 종류 및 방법

- 국내 법인의 주주들이 가진 국내 법인 주식을 해외법인에 출자하는 방식 (이 경우, 국내 법인은 해외 법인의 100% 자회사가 되며, 국내 법인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됨)
- 해외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해외 법인이 국내법인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고 국내 법인의 주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

○ 애로사항

- 국내 벤처펀드의 경우, 해외투자 한도가 설정된 펀드가 다수 있어, 벤처펀드를 통한 해외 스타트업 투자 지원이 곤란
- 현행법상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해당 펀드 결성액의 최소 20% 이상을 국내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에 한하여 해외투자를 80% 이상 할 수 있으며, 해당 운용사가 운용중인 전체 벤처펀드에서 국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40% 이상 되어야 하는 의무 요건이 존재
-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시 현지 투자자로부터 투자받기 위해서는 미국 법인으로 플립할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는 등 현지 투자자로부터의 투자유치가 어려움
- 해외 투자자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국내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는 현지 기업들도 다수 존재

□ 주요 논의

- 자기자본 거래, 사모·헤지펀드 투자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볼커룰 시행으로 미국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관련 국내 전문가가 부족함. 또한 플립의 경우 수반되는 법률자문 등의 비용, 세금 이슈 및 시기 등의 문제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곤란

- 중기부에서 미국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불커블과 해외투자 관련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해외진출 이후 국내 경제 환류 효과 여부, 미국과 한국에서의 고용창출 등의 비교를 통해 플립의 결과가 국내로 환류될 수 있다는 분석적 연구, 대조군 비교를 통한 정책 효과 유무의 검증 등 객관적인 증거 기반의 논의가 요구됨
- 외화 유출에 민감한 부처를 설득도 필요하고, 국내 기업이 자체 브랜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플립의 지분전환 간 파생상품의 형태로 한국은행과 연계·검증받는 모델을 만드는 등 새로운 모델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정책 제언

- 플립 시, 조세 이슈, 외국환 이슈, LP 동의 문제, 기업가치 산정, 행정적 이슈, 플립 이후 회수 방법 등에 애로 호소 → 플립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사전 지원해야 함

(3) (3차) KAIST 창업 프로그램 소개(' 23.10)

- KAIST는 글로벌 선도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원들의 창업문화 조성 노력
- 신문화전략 KAIST 내 1랩 1벤처 육성 목표
- (학생) E*5 KAIST 프로그램: BM, 고객탐색, Pitch Deck의 테마로 교육/코칭/평가
- (학생) Lab Startup KAIST: 실험실 기반 연구결과의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 (교원) KEP: 초기 교원창업기업의 팀빌딩 및 PoC 지원을 통한 스케일업 촉진
- (글로벌) GESS: 실리콘밸리 문화와 창업교육 기회 제공(20명 규모)

< KAIST의 글로벌 선도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



□ 주요 논의

- KAIST에는 크게 3가지 학생창업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E*5 KAIST 프로그램이 있음. 일종의 오디션과 같은 이 프로그램은 국내 탐티어 VC 멘토들이 직접 진행하는 멘토링과 더불어 자금, 공간 등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충남대와 연합캠프를 만들어 창업에 관심있는 학생들이 모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실제로 굉장한 시너지가 있었음.
- 교원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으며, 초기 창업기업들의 밸류업을 위해 프로토타입 제작을 지원하는 Fast Prototyping 프로그램 운영. 또한 IR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딥테크 창업기업의 IR 작성과 VC 매칭을 도와주고 있음.
- 예비 창업자들을 실리콘밸리에 보내 짧은 기간에 비즈니스 모델, PT 등을 경험시켜 창업 의지를 고취
 - 플립 이슈 관련하여 처음부터 실리콘밸리에 창업하고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실리콘밸리 창업형 모델을 만들어 창업 기업의 글로벌 투자유치와 사업연계 기회 확장을 지원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정책 제언

○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개방

- 국내 테스트베드를 해외기업에 개방하여 글로벌화를 지원해야 하며, 강제적이거나, 의도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보단 기업간 상호호혜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함.

○ 기술-자금을 매칭하는 새로운 협업 프로그램 구상

- JVC를 스타트업 형태로 만들어 회사는 자금을, KAIST는 교수/학생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고 정부는 R&D 자금을 매칭해 주는 새로운 모델을 구상했음. 이때 회사는 경영권을 갖되 KAIST는 지분권을 갖는 형태가 좋을 것

○ 딥테크의 해외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딥테크의 해외 연계 및 공동개발 기회의 사업화를 위한 카이스트 프로그램이 있으면 해외 협력이 더 용이해질 것임.

○ 궁극적 목표로서 생태계 성장을 위한 정책 모델 확립

-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정부가 나서주고, 궁극적으로 생태계가 잘 되는 것이 목표일 것임. 다만 대표적인 정책 모델이 없어 아쉬우며 중기부에서 그런 평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4) (4차) 국제개발협력과 한국, 기업(' 23.11)

□ 한국의 ODA 현황

○ 주로 아세안 지역에 개발원조 집중 제공(베트남,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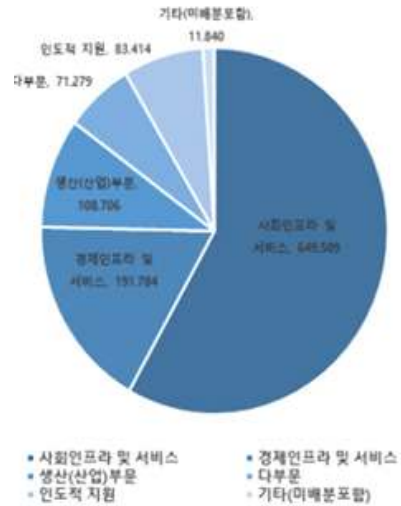
○ 분야상으로는 디지털, 환경 등 우위 분야에 집중, 지역적으로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핵심 국가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

○ 아직까지는 주로 사회인프라에 대부분의 지원을 집중

< 對아시아 공여국/다자기구의 ODA 규모 >

순위	DAC 공여국	ODA 규모	다자기구	ODA 규모
1	일본	50,256	국제개발협회(IDA)	14,068
2	독일	10,160	아시아개발은행(ADB)	8,212
3	미국	10,073	유럽연합(EU) 기관	4,622
4	호주	9,422	글로벌펀드(GF)	3,783
5	프랑스	7,888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799
6	한국	5,466	지구환경기금(GEF)	531
7	영국	2,720	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	492
8	스위스	1,374	국제통업개발기금(IFAD)	338
9	노르웨이	1,186	유엔개발계획(UNDP)	336
10	캐나다	1,042	유엔인구기금(UNFPA)	308

< 對아시아 분야별 ODA
지원규모(총지출액기준, '21) >



□ 주요 논의

- 중기부와 KOICA의 협업, 즉 정부가 관여하여 창구를 하나로 일원화시킨다면, 향후 기업의 PoC가 훨씬 수월하게 될 것임. 무엇보다 최근 중동을 비롯한 동남아 시장에서 화두는 브로커로 인한 피해사례 증가임. 따라서 정부가 정식 루트로서 중간에 관여, 다리 역할을 꼭 해줘야 함.
- KOICA의 '혁신적 개발 협력사업'(CTS, IBS, IPS)중, TIPS의 단계별 접근을 원형으로 한, CTS가 성과가 제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중기부와 KOICA가 점차 협업해 새로운 연결플랫폼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 민간부문에 대한 ODA의 새로운 접근법

- 정부가 아닌 민간의 창의성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 (SMEs 기술로드맵 기반, KOICA와의 협업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 KOICA의 혁신적 개발협력 사업: CTS, IBS, IPS 참조
 - 정부가 목표와 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국내에서 테스트하기 어려운 기술을 개도국 환경 속에서 검증

- CTS는 특히 팀스의 단계별 접근을 활용 : (Seed 0) 교육과정, (Seed 1) 개도국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기술개발 및 소규모 실증, (Seed 2) 1차 R&D가 종료된 제품을 개도국에 맞게 개량하여 현지 보급 등

< 민간부문 대상 ODA의 새로운 접근법 >



(5) (5차) 경과 보고 및 향후 계획('23.12)

- 글로벌 연계·정책 특별분과의 주요 논의 주제에 맞추어 아래와 같은 테마로 현황과 정책제언 작성 예정

< 최종보고서 주제(안) ('23.12) >

1 중소기업 글로벌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 (협력 R&D) 중소기업 국제협력 R&D 전략 수립 및 협력 수요 발굴·기획 • 주요 협력 국가별 공동 R&D 전략 수립, 협력 파트너 탐색 및 협력 수요 발굴 등 ☑ (협력거점/플랫폼) 글로벌 중소기업 기술혁신 협력 거점 조성을 통한 협력 플랫폼 구축 • 기술혁신 협력 유형별, 주요 국가별 협력 거점 조성 전략, 거점별 협력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계획 수립 등
2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금융 및 제도 개선	☑ (금융개방) 플립 등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금융(자본) 시장의 개방성 확대 • 플립, 해외 EXIT, 조인트벤처, 시장 진출(수출) 등 다양한 글로벌 진출 유형에 따른 금융 애로 해소 방안 등 ☑ (제도개선)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산업 분야 규제해소, 글로벌혁신특구 등 실증테스트베드 확대 등
3 중소기업 글로벌 혁신 생태계 기여 확대	☑ (혁신인재) 중소기업의 글로벌 혁신인재 육성 및 유입 강화 방안 마련 • 국내 우수인재의 글로벌 선도 중소기업 및 국제협력 전문가 유입,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교육 제공 등 ☑ (국제기여) 국제원조사업(ODA) 등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의 노하우 전수 • 혁신 중소기업을 통한 글로벌 난제해결 프로젝트, 중소기업 혁신지원 정책 노하우 및 생태계 발전방안 전수 등

B. 정책 의제

1. 중소기업 글로벌 기술협력 증진 방안

(1) 논의 배경 및 필요성

□ 글로벌 R&D 협력의 목적과 협력대상별 기대효과¹⁾

- 글로벌 R&D 협력의 목적은 기술적 동기, 경제적 동기, 전략적 동기로 구분
 - 기술적 동기는 주로 해외 선진기술 습득, 국내 애로기술 해결, 상품화 기술 선점, 국제 표준화 등을 목적으로 함
 - 경제적 동기는 개발비용 절감, 개발기간 단축, 시장진입/수출증대 등
 - 전략적 동기는 국내 경쟁기업 견제, 제품시장 선점, 기술인력 양성 등
- 글로벌 R&D 협력의 대상은 대학 및 연구기관, 경쟁 또는 협력 대상 기업, 부품 소재 공급 및 고객 기업 등으로 구분
 -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은 선진기술 획득 및 개발, 기술 자문 네트워크 확보, 연구개발 초기 단계에서의 시너지 등의 기대효과 예상
 - 타 기업과의 협력은 보완 기술 확보, 시장 지배력 강화, 글로벌 협력 파트너 발굴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부품 소재 공급 및 고객 기업과의 협력은 거래비용 및 개발비용의 감소, 위험 분산, 개발기간의 단축 효과 발생

□ 글로벌 R&D 협력의 필요성 및 배경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동맹국 중심의 기술 공동 대응의 중요성 부각
 - 기술패권으로 인해 호혜주의보다는 동맹국 중심*의 배타적 질서가 형성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의 지정학적 블록화가 심화됨
 - * AUKUS(호주, 영국, 미국), 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IPEF(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14개국) 등

1) 서주원(2023. 8. 10.), 「국제공동 R&D 소개 및 제언」,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글로벌 연계·정책분과)

○ 혁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글로벌 R&D 협력 기반 우수 혁신성과 도출²⁾

-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협력 연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글로벌 협력 비중과 우수 연구 실적도 비례하는 경향을 보임
 - * 해외협력 논문수 및 점유율: ('18) 491,697건(26.1%) → ('21) 604,400건(27.3%)
- 코로나19 백신('20), 인류 최초의 블랙홀 관측('19) 등 혁신적 연구 성과들은 주로 글로벌 공동 연구에서 기인

□ 한국의 글로벌 R&D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 '23년 정부의 글로벌 R&D 투자액은 5,075억원 규모로 정부 전체 R&D의 약 1.6%에 불과하며, 대부분 소규모 과제(3억원 미만이 77.5%를 차지)로 운영

* (정부R&D 中 공동연구 비율, '21) 이탈리아(7.1%), 영국(5.3%), 독일(3.4%)

○ 또한 글로벌 R&D 대부분이 국가 산업·혁신 경쟁력 강화 또는 기술패권 시대 동맹국과의 기술협력 강화와 같은 전략성이 결여된 자유공모 위주로 추진 중

* 전략형국제공동사업, 산업기술국제협력 등 대표 글로벌 R&D 사업 과제의 자유공모 비중이 41% 수준('19~ '21)

○ 글로벌 R&D 관련 통합 지원 전략 및 글로벌 혁신거점 활용 역량 부족

- 과학기술 글로벌 협력에 대한 포괄적·통합적 전략 수립 애로 및 범부처 컨트롤 타워의 부재
 - * △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과학기술 외교전략('19), △과학기술·ICT ODA 활성화 전략('21), △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 전략('23), △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23) 등이 전략적 고민이 부족한 채 산발적으로 발표됨

○ 특히 중소기업의 글로벌 R&D 활성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만의 특화 전략이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은 부재한 실정임

- 기초기술(과기부), 산업기술(산업부) 차원에서 장기간 글로벌 협력사업을 추진한 것과 달리, 중기부의 중소기업 글로벌 기술협력 지원노력 부족

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2023. 11. 27.),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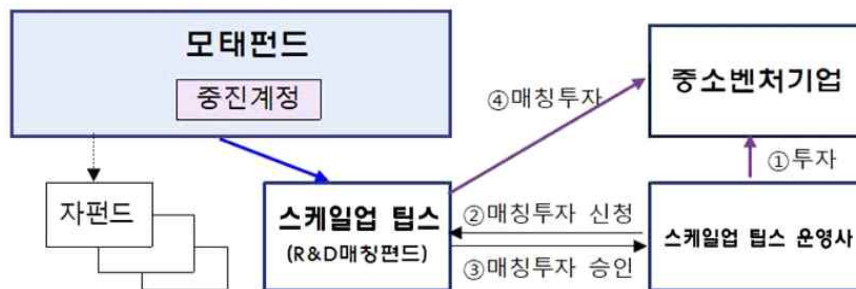
(2) 국내외 동향

□ 딥테크 혁신벤처의 글로벌 협력기반 플랫폼: 스케일업 TIPS - 중기부

○ 민간 주도의 고위험·혁신형 R&D 지원을 위한 스케일업 TIPS 운영

- 민간 VC의 기업선별 및 보육역량, 자본력을 활용해 先 민간투자(벤처캐피탈), 後정부(모태펀드+출연R&D) 매칭방식으로 지원

< ‘스케일업 팁스(TIPS)’의 지분투자 작동 구조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3. 8. 24.), 「민간주도 기술개발(R&D) 생태계 혁신 선도, ‘스케일업 팁스 네트워크 행사(운영사+선정기업)’ 개최」.

- 국내 딥테크 혁신벤처의 글로벌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스케일업 팁스 밋업(Meet up) 행사’ 개최(’ 23, 1~2차, 보스턴)

* 딥테크 기반 중소·벤처기업 중 해외진출, 협업관심 기업대상 현지 전문가와 1:1 비즈니스 상담, IR, 세미나 등 진행

○ 중소기업 국제 기술협력 전담 지원을 위한 거점 구축

- ‘한국형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 송도에서 ‘K-바이오 랩허브’ 사업을 추진

*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와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일본 쇼난 바이오 헬스 이노베이션파크를 연결하는 한-미-일 삼각 클러스터 네트워크 구축

- 보스턴 켄달스퀘어(Kendall Square) 내 ‘CIC Cambridge’ 사무실 내 글로벌 R&D 협력 지원 거점(TIPS@Boston) 조성

*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 글로벌 R&D 협력 파트너 매칭, ▲ 국제 공동 R&D 수요 발굴, ▲ 현지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 국내 딥테크 혁신기업의 글로벌 R&D 협력을 촉진하는 역할 수행

□ 글로벌 협력 R&D 확대와 선도형 글로벌 R&D 추진 전략 수립 - 과기정통부

○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하는 글로벌 R&D 투자 확대

- 향후 3년간 글로벌 R&D 5.4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정부 R&D 비중의 6~7% 수준으로 향상(2023년 기준 1.6%)

* 2024년 기준 1.8조원 투자(전체 R&D의 6.8% 수준)('23, 5,000억원)

○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 전략' 수립(23. 11.)

- 1)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시스템 혁신, 2)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 3) 글로벌 스탠다드의 연구 생태계 조성의 추진전략
-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글로벌 투자 확대, 기초연구의 글로벌 전환, 표준, 실증, 수출지원 등의 확대로의 글로벌 R&D 체계 개편 방향 설정
- 특히 12대 국가전략기술, 17대 탄소중립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협력 전략을 도출하는 '글로벌 R&D 전략지도 수립', 주요 기술분야(11개)별 글로벌 선도 R&D를 추진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에 주목
- 이의 추진을 위해, 자문회의 산하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현지에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를 운영

< '글로벌 R&D 추진 전략(23.11.)'의 체계 개편 방향 >



자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2023. 11. 27.),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

□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 및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 - 산업부

○ 글로벌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의 추진

- 국제공동 기술개발(양자 공동, 다자 공동, 전략기술) 및 국제협력 기반구축(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로 구분되어 수행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제29조(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 ‘24년 기준 1,7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양자(미국, 영국, 독일, 중국 등 10개국), 다자(프랑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덴마크), 네트워크(유레카, 메라넷 3, 호라이즌유럽), 전략기술(수요연계형, 기술도입형, 협력거점형) 사업 수행

< 산업기술국제협력사업의 사업 구조 >

내역사업	목적	협력유형 및 내용	
국제공동 기술개발	원천기술 습득, 해외시장 진출,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양·다자간 국제공동R&D 지원	다자공동	유레카, 유로스타, Horizon Europe, 메라넷
		양자공동	G2G 양자협력 14개국 대상
		전략기술	협력거점형, 수요연계형, 기술도입형
국제협력 기반구축	국내외 산학연간 기술협력 수요 발굴 및 파트너 탐색 등을 지원 하여 국제공동연구를 활성화	해외기술협력거점, 기술협력플랫폼 등	

국내 중소기업들의 주요 Target 프로그램

자료: 서주원(2023. 8. 10.), 「국제공동 R&D 소개 및 제언」,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글로벌 연계·정책분과)

○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안)’ 수립(23. 12.)

- 산업부의 R&D 국제협력 규모의 대폭 확대 목표(’ 23, 3,321억원→’ 24, 5,309억원→~’ 28, 산업부 R&D의 15% 이상(현재 5.8%))
- R&D 국제협력 전략기술을 1) 초격차 급소기술, 2) 차세대 산업원천기술, 3) 도전적 미래기술, 4) 기업의 수요맞춤형 요소기술로 구분하고, 80개 초격차 기술, 100개 산업원천기술을 국제협력을 통해 신속 확보
- 더불어, 미국, 유럽, 일본, 아세안 등 우방국 중심의 전략적 기술협력 기반구축 및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등 개방형 혁신생태계 조성 노력

(3) 정책 제안

□ (선도 R&D 협력) 전략기술 등 중점 분야 글로벌 선도 R&D 협력지원 고도화

○ 국내 중소기업-해외 선도 연구기관 간 글로벌 선도 R&D 협력 플랫폼 구축

- 해외 선도 연구기관*의 연구 인력 및 기술을 국내 선도 혁신 중소기업과 매칭하여 공동 연구, 기술사업화 협력 추진

* 예) MIT ILP(Industrial Liaison Program): MIT 산학연계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기업-벤처 간 사업화연계 연구개발, 기술이전 등 비즈니스 협력 및 벤처 보육 등 지원

○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 스케일업 팀스 등에서의 전략기술 공동 R&D 추진

- 중기부의 혁신형 R&D, 스케일업 중심의 정책변화에 맞추어 전략기술 분야 중심 대규모 R&D 투자 환경 조성, 글로벌 R&D 협력 유인 발생
- 이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의 주요 전략기술 분야 핵심 원천·요소 기술 확보를 위한 글로벌 연구기관과의 협력 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 (글로벌 테스트베드) 인 & 아웃바운드 실증 레퍼런스 확보 전략 마련

○ 신기술·신산업 분야 사업모델의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제품·서비스의 실증을 통한 레퍼런스(Reference) 확보가 매우 중요

○ (인바운드) 글로벌 테스트베드로서 국내 시장을 글로벌 대기업과 국내 스타트업 간 혁신 기술·스탠다드의 실증의 장으로 마련

- 중기부의 글로벌혁신특구를 통해 첨단기술 분야의 제품·서비스의 글로벌 스탠다드를 위한 모든 실증의 원칙적 허용
-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대기업의 적극적인 실증 참여 유도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의 파이프라인으로 활용(실증 파트너십 지원)

* 국내 글로벌 대기업이 설치운영 중인 혁신·실증 포스트는 71개소로 최근 10년간 2배 이상 급증³⁾

3) 진형석(2024), 「스타트업 수출 현황 및 수출 활성화 정책 제언」, 『TRADE FOCUS』, 21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아웃바운드) 해외 클러스터 및 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한 해외 실증거점 조성 및 현지 실증 협력 R&D 지원

- 혁신 기술 및 비즈니스의 개념 검증(PoC)를 넘어 실제 수출이 가능한 시장성 검증(PoV) 위주로 해외 실증 지원 범위 및 기준 확대

* 협력 R&D 형태 외 해외실증 전용 바우처 신설 또는 수출바우처 내 해외실증 서비스 옵션 추가 필요

□ (협력 거점) 글로벌 현지의 혁신생태계 융합형 협력 거점 구축 및 전문성 확보

○ 기술혁신 기반 유망 중소기업의 국제 기술협력을 넘어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스케일업 전담 거점(가칭 ‘K-Global Scale-up Hub’) 구축

- 협력 거점별로 대상국가의 특성에 맞는 국제기술협력 지원*, 해외시장 진출(현지화) 지원**, 글로벌 스케일업 교육 지원*** 등 제공

* 기업별 맞춤형 국제기술협력 수요발굴 및 국제 기술협력 활동을 통한 기업 성장에 대한 전문 컨설팅 및 멘토링 제공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기술 및 비즈니스모델을 진출 대상 국가에 맞게 현지화하는 활동 지원

* 중소기업의 경영진 및 전담인력 대상으로 글로벌 스케일업 및 기술사업화 국제 협력을 위한 실무지식 제공

○ 협력 거점 중심으로 대상국가의 혁신생태계 내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 및 현지 인력 중심의 현지화 전략 수립

- 해외 진출 대상국가 현지 혁신생태계와의 융화를 위한 혁신주체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 전문 지원인력의 활용

* 덴마크 ICDK 예: 서울을 비롯한 전세계 7개 혁신도시(생태계)에 혁신 거점을 설립하고, 덴마크 기업의 해당 생태계 진출의 관문이자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⁴⁾

□ (국가별 전략) 주요 국가별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혁신 협력 특화 전략 수립

○ 전략적 동맹국(미국, 일본, 유럽 등)과 자본기반 협력국(중동), 신흥시장국(동

4) 김영환(2024. 6. 12.), 「혁신 국가, 덴마크: 덴마크 혁신생태계 특징과 시사점」, 『STEPI Insight』, 제324호, STEPI.

남아시아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교류·협력 전략 수립

* 예) 전략적 동맹국: 유사 클러스터 기반 연계 지원, 자본기반 협력국: 정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에 선단식 참여, 신흥시장 대상국: G2G 정책 협력 기반의 B2B 협력 채널 확보 및 제공

- 협력대상 국가의 특성에 따른 시장진입 및 협력 성공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선발 및 지원으로 한정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도 제고

○ 중소기업 수요 중심의 국가별 범부처 국제협력 협의체 구성·운영

- R&D 전문기관별 산재된 국내 R&D 전문 분야*, 해외협력 인프라**의 상호공유 및 공동협력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협의체’ 운영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기업R&D),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산업기술R&D), 정보통신기획평가원(정보통신R&D)

* (KEIT) 실리콘밸리, 보스턴, 베를린 직원 파견, (IITP) 실리콘밸리 직원 파견

2. 글로벌 진출과 금융 규제 : 볼커룰과 플립 이슈

(1) 논의 배경 및 필요성

□ 논의 배경

○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시장진출은 지속적으로 증가⁵⁾

- 우리 기업의 서비스 및 기술수출*과 해외진출** 증가 추세

* 수출증가율(% , '14 → '23): (중소전체) 8.2, (중소기술수출) 161, (ICT분야 서비스수출) 367

*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신규 해외법인 추이(개):

('19) 356 → ('20) 265 → ('21) 279 → ('22) 353 → ('23) 358

○ 경제 성장, 사회 혁신, 고용 창출에 있어서 창업의 중요성 확대.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 수립 실행⁶⁾

- 창업 정책인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⁷⁾에 따라,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한국인이나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창업을 하거나 해외법인 전환을 통해 진출(Flip*)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⁸⁾

* 플립(Flip) : 국내기업이 외국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기업이 신설된 외국법인의 자회사가 되도록 지배구조를 뒤엎는(Flip) 해외법인 전환 절차

○ 그러나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또는 현지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에 어려움

- 미국 투자의 경우, 국내 금융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볼커룰*을 준수해야 하며, 볼커룰로 인해 투자가 어려운 상황⁹⁾

* 볼커룰(Volcker Rule) : 미국 오바마 정부가 미국 금융기관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고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만든 금융기관 규제책

5)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4.05.08.), 중소벤처기업 수출 성장과 해외진출 확실하게 이끈다

6) 창업진흥원(2023),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관련 규제애로 현황 및 개선방안”

7) 관계부처합동(23.08.30),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

8)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4.02.20.),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국경을 넘어 세계(글로벌) 창업 지원”

9) 장호식(2023), “한인 스타트업 기업에 답을 묻다-신한금융그룹, 해외 한인 스타트업 기업 투자 현황”

□ ‘볼커룰(Volcker Rule)’ 지원 대책 필요성

-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진출과 장기적 성장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해 볼커룰 관련 글로벌 규제 대응력 향상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함
 - 볼커룰은 2020년 6월부터 규제대상펀드 가운데 벤처캐피털펀드 및 유사펀드를 제외하여 은행의 해당 펀드 투자가 용이해졌음.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볼커룰 완화 추세에 반하는 입장이므로 금융시장 위축 및 규제 강화에 대응할 인력 및 지원 방안 필요¹⁰⁾
 - 국내 벤처 캐피탈은 대부분 국내를 대상으로 투자하고 있어, 해외 투자경험이 부족하며 국외 설립 법인에 대한 투자시 별도 해당지역의 법률 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 필요¹¹⁾

□ ‘플립(Flip)’ 지원 대책 필요성¹²⁾

- 기업의 일반적인 해외진출 단계를 넘어, 스타트업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플립(Flip) 사례 발생
 - 해외에서 활동 중인 스타트업 중에서 약 8.6%는 한국에서 설립된 이후 플립(Flip)을 실행한 기업¹³⁾
 - 국내 스타트업에 의한 플립 실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추진을 고려하는 스타트업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지만, 여러 가지 장애 요인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함
- 플립을 실시한 스타트업은 해외 창업 생태계에서 효과적으로 활동
 - 플립 실시 스타트업은 국내와 지속적으로 협업하며, 창업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한 거점 역할 수행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
 - 그러나 플립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고자 하는 스타트업들은 무엇보다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하여, 진행 과정에서 겪는 각종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10) Digital Today(2021), “[디지털피디아] 볼커룰(Volcker Rule)”

11) 전호진(2023), “한인 스타트업 기업에 답을 묻다-해외 벤처기업 투자방안”

12) 창업진흥원(2023),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관련 규제에로 현황 및 개선방안”

1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 진출 스타트업 현황 조사 결과”

(2) 국내외 동향

□ 볼커룰 관련 국내외 동향

-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10년 7월 도드-프랭크 법¹⁴⁾을 제정하고 그 일환으로 은행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볼커룰을 도입¹⁵⁾

< 도드-프랭크법 및 볼커룰 도입 및 개정 경과 >

날짜	내용
2010.7	도드-프랭크법 제정
2013.12	5개 연방감독기관 공동 볼커룰 이행을 위한 규칙(최종안) 발표. `14.7월 발효계획
2014.7	은행권 요청으로 1년 시행연장
2015.7	자기거래계정 거래 제한 시행/ Covered Fund 적용 2년 유예(`17.7월)
2016.9	하원, 도드프랭크법 대체 목적으로 금융선택법안(Financial CHOICE Act) 발의
2016.11	트럼프 당선(`16.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도드-프랭크법 폐기 주장)
2017.2	트럼프, 금융규제체계 검토 행정명령 발표
2017.4	대통령 지침, 취임 100일 주요 공약에 볼커룰 완화 포함
2017.6	재무부, 은행권 금융규제체계 개편 권고안 발표, 금융선택법안(Financial CHOICE Act) 하원 통과
2017.7	볼커룰 전면 시행
2017.11	상원, 금융규제 개편방안을 담은 경제성장/규제완화/소비자보호법안 발의
2018.5	경제성장/규제완화/소비자보호법 제정/발효, 볼커룰 개정안 하원 통과(6월 상원 통과), Fed 볼커룰 개정 예고
2019.10	Fed 등 감독당국 볼커룰 개정안(자기계정거래 완화 등) 확정
2020.1	볼커룰 완화 자율 시행(`21.1월부터 의무 시행). 볼커룰 등 금융규제 추가 완화 계획 발표
2020.6	Fed 등 감독당국 볼커룰 추가 개정안(벤처캐피탈 투자규제 완화 등) 확정

출처: 국제금융센터(2020)

○ 볼커룰 시행에 따른 글로벌 동향¹⁶⁾

- 미국에서 볼커룰 시행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들은 대형 투자은행들은 볼커룰에 따른 사업 포트폴리오 수정

14) 도드-프랭크 법 : 2008년 금융위기를 부른 주범으로 꼽히는 파생상품의 거래 투명성을 높여 위험 수준을 줄이고 자산 500억 달러가 넘는 대형은행들에게 자본 확충을 강제하는 내용의 금융개혁법

15) 국제금융센터(2020), “볼커룰(Volcker rule) 주요 개정내용 및 평가”

16) 삼정 KPMG(2014), “미국 ‘볼커룰’ 현황 및 시사점”

< 볼커룰 시행에 따른 글로벌 금융기관의 대응 현황 >

금융기관	대응
골드만삭스	부동산 및 대출 직접투자 확대, 채권/통화/헤지·사모펀드 투자 일부 철수
JP모건	RBS와 상품트레이딩 합작회사의 유럽 및 아시아 사업부서 매각, 자기자본거래 부문 자회사로 분리 추진
씨티그룹	대체투자 자산 운용사 매각, 60억 달러 이상의 헤지·사모펀드 자산 매각
뱅크오브아메리카	노스코브파트너스(50억 달러), 리지몬트에쿼티파트너스(14억 달러) 매각, 트레이딩 비즈니스 대폭 축소
도이치뱅크	미국법인 은행 면허 포기, 투자은행 부문만 유지
바클레이즈	미국법인 은행 면허 포기

출처: 삼정 KPMG(2014)

-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2018년 강화된 감독규정이 적용되는 은행의 자산 기준을 500억달러 이상에서 2,500억달러 이상으로 완화*
 - * 경제성장을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확대 및 감세정책과 더불어 금융규제완화가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
- '23년 'SVB 사태'를 기점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완화한 '도드-프랭크법'을 재정비*하는 은행 규제 강화 추진
 -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산 규모 1,000억~2,500억달러 은행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다시 강화하라고 금융 당국에 지시

< 'SVB 사태' 은행 규제 강화 추진 >

구분	내용
도드-프랭크법 제정시	2010년 도드-프랭크 법 - 자산 500억달러 이상 은행들 매년 스트레스테스트 - 금융기관의 자기자본 위험자산 투자 제한(볼커룰)
트럼프 행정부	2018년 규제 완화 - 자산 2,500억달러 이상 은행으로 대상 축소 - 소형은행 면제 요건 완화
바이든 행정부	2023년 백악관 금융규제 강화 권고안 - 자산 1,000억달러 이상 은행으로 확대 - 자산 1,000억달러 은행은 자본 비율 인상·위기해결 계획 제출

출처 : 한국경제(2023.4.4.), "SVB에 놀란 바이든, 은행규제 다시 조인다"

□ 플립 국내외 동향

- '21년 기준 해외 진출 스타트업 중 49.5%는 본사가 해외이며, 전년도(37.0%)에 비해 13%p 증가¹⁷⁾
- '22년 기준 29개국에 소재한 한인 스타트업은 총 259개사로 전년(198개) 대비 약 30.8% 증가¹⁸⁾
 - 전체의 51.0%(132개사)가 국내 모기업 없이 해외에서 처음 창업
 - * (글로벌 비중) 37.0%('20) → 46.0%('21) → 51.0%('23)
 - 해외진출 방식 : '단독 투자(76.5%)', '해외기업과 합작투자(8.1%)', '플립(5.0%)', '해외기업 인수 또는 합병(0.8%)' 순
 - 해외 진출 스타트업의 36.7%가 북미 지역에 소재(실리콘밸리에 절반가량 위치). 중국(19.7%), 동남아(15.4%), 유럽(10.8%), 일본(6.2%) 진출
- 플립 시 법적, 회계적, 세무적인 제도 관련 사항에 대한 대응이 필요
 - 주주 동의, 외환관리법상 신고 의무 등 내·외부적 절차 준수가 필요하여 해당 비용을 상회하는 플립의 당위성 검토가 필수적

□ 국내 중소·벤처기업 해외 진출 지원 현황¹⁹⁾

- 거점형 지원내용(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관)
 - 현지 입주공간 제공부터 사업화 지원, 투자유치까지 기업별 해외진출 전략에 따라 맞춤형 지원

17) KOTRA 보도자료(2022.01.26.), “해외 진출 스타트업 46%, 글로벌 서비스 론칭하러 ‘해외로’”

18) KOTRA 보도자료(2023.01.27.), “해외진출 스타트업 절반, ‘처음부터 해외에서 창업했다’”

19) 코리아스타트업센터(<https://k-startupcenter.org/>)

< 거점형 지원내용(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관) >

주요지원	상세내용(안)
초기정착 지원 (KSC Basic Program) 지원 : 초기정착을 위한 온보딩	- 입주공간 제공 - 시장조사 및 진출 전략 제공 - 전문가 상담, 멘토링 등 지원 - 법률, 세무, 회계 등 자문지원 - 법인설립, 계좌개설 등 지원
사업화 지원 (KSC Commercial Program) 지원 : KSC 민간센터장의 네트워킹 등 전문성을 활용한 판로확대 및 사업화	- 바이어, 사업화 파트너 발굴 - 피치덱 등 IR 발표자료 자문·제작지원 및 VC매칭 등 IR·데모데이 지원 - 특허, 상표, 소송 등 자문지원 - 마케팅,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회 등 참가지원 - 기술·경영 컨설팅 지원
성과창출 지원 (KSC) : 글로벌 AC 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 VC 등 파트너사 네트워킹 채널구축 고도화(투자사 대상 홍보 등) - 자금조달방법 교육 및 전문투자자 1:1피칭 등 투자유치 연계 지원

출처 : 코리아스타트업센터(<https://k-startupcenter.org/>)

○ 프로그램형 지원내용(창업진흥원 주관)

-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당 6천만원의 정부 지원금 지급 및 총 14주간 기업별 1:1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형 지원내용(창업진흥원 주관) >

주요지원	상세내용(안)
해외 진출자금	- 기업당 6천만원
KPI 워크숍(2주간, 국내)	- 창업기업-AC 간 면담을 통해 현지진출 KPI(목표) 설정
진출준비(4주간, 온라인)	- 창업기업-해외 파트너사 매칭 - 현지 진출전략 최종 점검
현지 프로그램(8주간, 현지)	-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 협력 파트너사 발굴 및 투자사 매칭
글로벌 IR	- 현지IR 및 통합 데모데이 추진

출처 : 코리아스타트업센터(<https://k-startupcenter.org/>)

○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운영내용(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주관)

- 업력 7년 이내 수출 또는 투자실적이 있는 유망 스타트업 대상 지원

- 글로벌 혁신거점에 창업기업 해외진출 플랫폼을 조성하고,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성장단계 창업기업의 현지 투자유치, 창업 생태계 편입 및 안착 지원
- 국내외 스타트업 지원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 유망스타트업을 해외와 연결하는 허브(hub)로서의 기능 수행

<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운영현황 >

구분	미국 (시애틀)	인도 (뉴델리)	이스라엘 (텔아비브)	싱가포르 (싱가포르)	스웨덴 (스톡홀름)	핀란드 (헬싱키)	프랑스 (파리)	베트남 (하노이)	일본 (도쿄)
개소 시기	19년	19년	19년	20년	20년	20년	22년	23년	24년
설치 유형	복합형	프로그램형	프로그램형	복합형	프로그램형	프로그램형	복합형	복합형	거점형

출처 : 코리아스타트업센터(<https://k-startupcenter.org/>)

< 코리아스타트업센터 유형 >

구분	내용
프로그램형	물리적 거점(센터) 없이 현지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창업진흥원 운영)
복합형	거점형 및 프로그램형 복합 운영
거점형	현지 거점 센터를 직접 운영(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

출처 : 코리아스타트업센터(<https://k-startupcenter.org/>)

(3) 정책 제언

□ 해외진출 지원사업 홍보 및 성공사례 공유 확대

○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홍보 및 성공사례 공유 확대를 통해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증대 및 접근성 향상에 기여

- 국외 창업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 벤처·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 자격조건별 지원 내용 숙지에 어려움 존재

* 해외진출 스타트업 중 63.3%는 지원사업 이용 경험 없음(KOTRA(2023))

□ 스타트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현재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초기 정착을 위한 온보딩 지원으로 법률, 세무, 회계 등 자문을 지원하고 있으나, 제반 비용을 직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 신설 필요
 - 플립시 법적, 회계적, 세무적인 제도 관련 사항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 발생, 막대한 정보, 플립 후 새로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여 이러한 스타트업의 플립을 위한 실제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 제기²⁰⁾
- 해외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및 행정 비용을 세액 공제 대상으로 포함 및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이연 등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법제 개선
 - 양도소득세 등 세금 이슈는 플립 추진시 주된 걸림돌 중 하나로, 신설 법인과 기존 법인의 주식 교환시 기업가치평가 방법에 따라 수익 없는 세금이 대량 발생할 가능성 존재
 - 플립은 주주들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주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 세액 검토 및 최소화 방안을 마련 필요
- 플립 후 재투자시 투자 유지 기간을 축소하여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등의 초기 창업자금에 대한 투자 확대 유도하고, 개인투자자의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부담 완화 추진 필요²¹⁾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의8 ③항에서는 재투자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3년 이상 보유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

□ 정책적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확대

- 불커룰, 플립, 해외투자 등 해외진출을 위한 국제거래시 필요한 법률자문 및 세제 지원 확대
 - 중소·벤처기업의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국제거래 협상능력을 제고하여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지원 확대

20) 창업진흥원(2023),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관련 규제애로 현황 및 개선방안”

21)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3),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 볼커룰 및 플립 준수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확대

○ 해외진출 중소기업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모니터링 지원 확대

- 미국 금융 규제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기업에 제공하는 시스템 운영제도 마련
-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진단하고 모니터링 및 적절한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장기성장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공급 확대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영관리 지원

3. 중소기업 개발협력(ODA) 참여 확대 방안

(1) 논의 배경 및 필요성

□ 국가 위상 증대에 따른 공적개발원조(ODA) 증가

-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자본 및 인프라 부족에 시달리는 빈곤국 및 개발도상국의 발전역량 확대를 위해 공여되는 금액
-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국제적 위상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그 증가폭이 더욱 커져 증여등가액 기준으로 2023년 기준 3조 1311억원에 달하며 이는 9년 전인 2013년의 1조 1856원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 금액

< 공적개발원조 증가 추세 >



□ ODA금액의 빠른 증가에 따라 원조효과성의 제고 필요성이 부각됨.

- 협력국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개발수요 역시 기초적 필요에서 산업 쪽으로 차츰 이동하는 추세로, 이는 아세안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두드러짐.
-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아세안 연결성 종합계획(MPAC) 2025는 아세안의 자체적인 성장에 따라 생겨나는 도전(소비 계층 및 중형 도시의 성장)과 산업 발전의 필요에 따른 수요(생산성과 경쟁력, 파괴적 기술, 자원 혁명), 대외환경

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세계경제의 혼란, 지정학적 우려)와 같이 새로이 부각되는 도전 요소들을 식별하고 있어 진출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디지털 혁신과 인적 이동성의 제고, 물류 문제를 주요 영역으로 제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를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식별됨.

< MPAC 2025의 주요 이니셔티브 >

기존 아세안 분야별 이니셔티브들을 효과적으로 조율함으로써 가치를 추가하는 최신 이니셔티브

	2025 아세안 연계성	가치 영역				
		추가성	확장성	조화성	심화성	강조성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잠재적 아세안 기반시설 프로젝트 및 자금 조달처의 통합 목록 작성	높은 중요도		보통의 중요도		
	기반시설 생산성을 측정·개선하는 아세안 플랫폼 구축	보통의 중요도		높은 중요도	보통의 중요도	
	아세안 도시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화 전략 실시			높은 중요도	보통의 중요도	
디지털 혁신 	극소·중소기업 기술 플랫폼 개선			높은 중요도	보통의 중요도	
	아세안 디지털 금융적 수용성 프레임워크 개발			높은 중요도	보통의 중요도	
	아세안 개방형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보통의 중요도	높은 중요도	보통의 중요도	
	아세안 디지털 데이터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구축			높은 중요도	보통의 중요도	
원활한 물류 	무역 경로 및 물류 분야의 강화를 통한 아세안 경쟁력 강화		보통의 중요도	높은 중요도	보통의 중요도	
	주요 애로 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공급망 효율성 향상			높은 중요도	보통의 중요도	
규제 혁신 	세 가지 중요 제품 그룹 내 표준, 상호인정 및 기술규정의 완전한 조화			높은 중요도	보통의 중요도	강조성
	투명성을 높이고 적극 평가하여 무역 왜곡 비관세 조치를 제거		보통의 중요도	높은 중요도	보통의 중요도	강조성
인적 이동성 	정보 검색을 용이하게 만들어 아세안 관광 수준 개선			높은 중요도	보통의 중요도	
	비자 절차를 개선하여 아세안 관광 간편화			높은 중요도	보통의 중요도	
	각 아세안 회원국의 국가 상황에 맞춰 모든 아세안 회원국에 새로운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공통 자격 심사 과정을 수립			높은 중요도	보통의 중요도	
	모든 아세안 회원국의 고등 교육 교류 지원			높은 중요도	보통의 중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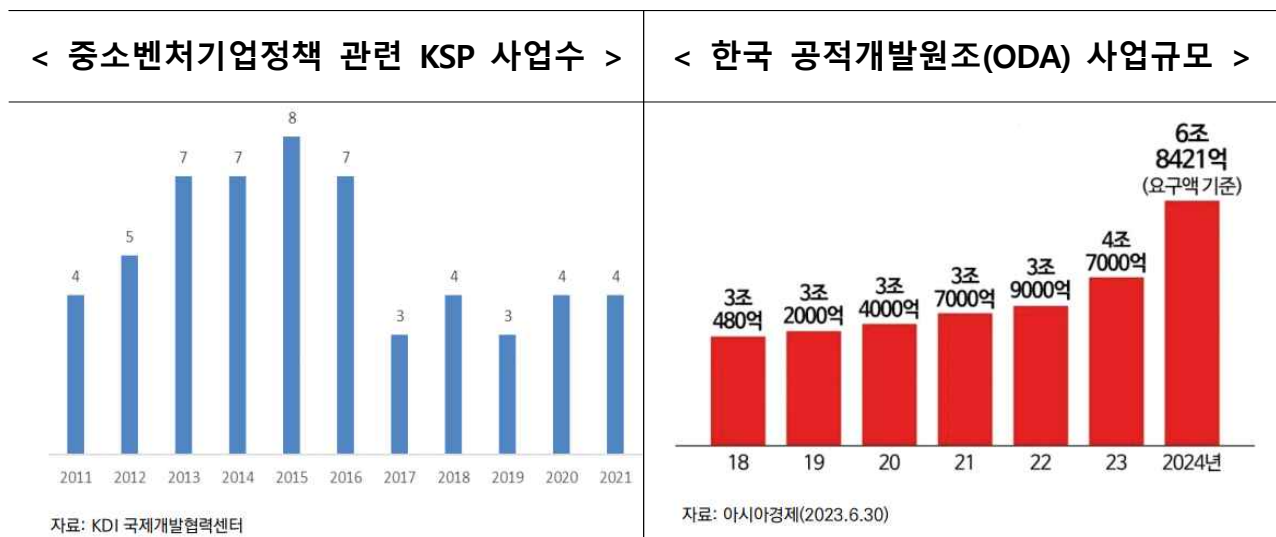
출처: ASEAN Secretariat (2016)

□ 경제적 연관성이 높은 국가에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

-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공급망의 일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진출해있는 상태
- 협력국 정부는 자생적 산업역량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으며, 외투기업의 유치를 통해 기업역량을 확대하고자 함.

(2) 국내외 동향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규모의 확대와 함께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원조 수요 또한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



- 아세안 등 주요지역은 기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유니콘 기업이 다수 탄생할 정도로 자본시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나, 최근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김지현 외. 2022).
- 게이트즈 재단 등 민간부문의 주요 주체들은 공공부문에서 갖기 어려운 혁신성과 유연성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공급망 재편과 같이 국경을 넘어서고 기업경영과 직결된 이슈의 부상에 따라 NGO뿐 아니라 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
- 세계은행의 Ease of Doing Business에 발표되는 지표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우호적인 기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이미 많은 한국 기업들과 다국적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진출해 있는 현실과도 부합
- 아세안 국가들은 단계적으로 산업 발전을 이루고, 관련 규제가 함께 발전한 우리나라와 달리 규제가 자리잡지 않은 영역이 상당수 존재하여 디지털화와

같은 새로운 기술 흐름을 타고 단계를 건너 뛴 도약(leapfrogging)이 가능 (USAID. 2017)

- 아시아 국가들이 내거는 경제발전이라는 목표는 국가 주도의 경제계획과 소수 대기업의 역량만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며 민간부문의 창의성과 활발한 기업생태계가 필요하고, 한국의 경제 역동성에 대한 인식이 역내에 자리잡음.

□ 우리나라 정부 역시 개발협력에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 천명

- 4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제시된 「민간부문 참여전략」은 재원의 다양화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개도국 시장 진출, 협력국의 개발역량 강화라는 차원에서 다루고 있음.

< 민간부문 참여 확대 개념도 >



* 출처: 민간부문(기업)과의 협력전략 수립 연구(국조실, 2021). 43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안건에서 재인용.

- KOICA에서는 매칭펀드를 제공하여 민간부문의 활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reative Technology Solution; CTS)과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nclusive Business Solution, IBS)을 운영
- CTS는 우리나라의 사업가, 스타트업 등이 비즈니스 모델과 기술을 통해 개발협력 분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 개도국에는 기존 관 주도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문제 해결의 기회를 제공하고, 현지의 기업 역량을 기업에는 개발도상국에서 자신들의 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벤처부의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Korea) 프로그램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현 시점의 기업규모에 근거해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영향력에 집중하고, 평가를 민간부문에서 실시한다는 데 차이점이 있음.
 - TIPS와 동일하게 예비 프로그램 - 기술 개발 - 시범 비즈니스 사업 등으로 단계를 밟으며 점차 지원 액수가 증가하는 구조
- IBS는 개발도상국 저소득층이 당면한 사회 개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이들에게 고용과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니즈 충족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한 전략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한 사업
- 최근 ESG, 인프라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유형 운영 중

□ 기후변화 및 디지털 전환 부문은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는 분야

- 기후변화 부문 ODA는 감축(mitigation) 및 적응(adaptation)을 포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2017년 그린 뉴딜 ODA 전략을 채택하여 1) 개발도상국의 녹색 전환을 지원하고, 2) 그린리더로서 그린뉴딜 협력을 활성화하고, 3) 상생을 위한 파트너십 확대를 지원하는 것
- 이를 위해 정부는 녹색 기후 기금(GCF)에 대한 기부금을 3억 달러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ODA 차관 규모를 3배, 2025년까지 녹색 관련 차관 비중을 2배로 늘릴 것을 천명
 - 기후위기 대응, 탄소배출 저감, 친환경제품 생산 및 판매등 탄소 중립 실현에 도움이 되는 분야에 투자가 활발해질 전망
 - 우리나라의 에너지 부문 ODA 지원 순위는 6위로 상위그룹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1위, 2위인 일본과 독일에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우리나라는 에너지 분야의 60% 이상을 에너지 배분(Energy distribution)에 할당하여 왔으나, 앞으로 영농형 태양광 등 소형 인프라 에너지와 사회개발이 결합된 영역에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이 존재
- 디지털 전환 역시 국제기구 등에 의해 개발협력의 주 의제로 논의되고 있으

며, 포용성을 크게 강조함. 따라서 브로드밴드 등 하드웨어 투자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디지털 보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 디지털 역량 강화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미 CTS, IBS를 통하여 원격 교육 및 의료, 장애인 보조기술 제공 등의 성공 사례를 만든 바 있음.
- 향후 과제는 ODA의 특성상 저개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이라는 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진출기회에 제약을 받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

(3) 정책 제안

□ CTS, IBS 등의 확대와 현지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및 신생기업 정책은 정부가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에서 민간 투자자 및 액셀러레이터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으며, 이는 ODA에 적용되어 CTS, IBS 등 혁신적 개발프로그램으로 발전함.
- 이러한 제도적 경험과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가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국가와 차별화되는 경험
- CTS와 IBS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 진출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현지 기업을 발굴하고 ODA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진출을 위한 여건 마련

□ 디지털 전환 부문에 대한 원조-민간부문 간 연계 강화

- 관세, 조달 등 전자정부뿐 아니라 농업,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등 민간무분 수요, 사이버보안 등 민간-공공 공통에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존재(인도네시아 산업부, 2018).
- 개발도상국의 디지털 전환은 선진국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환경 문제와 동일하게 산업성장의 잠재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
- 따라서 디지털 전환관련 지원은 단순 기술 이전을 넘어 개인과 조직의 활용 역량 등 개발도상국의 포괄적 대응 역량이 중요
- 민-관 또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개도국 진출을 지원

- 한국은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민간 부문의 기술인력, 빅데이터 및 AI/ML 기술의 적용 역량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므로 공공부문이나 기업경영에 활용할 수 있는 대표 사례(best practice)를 구축하고 있다는 장점을 살릴 필요(임덕순 외. 2022)

- 현지 교육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고등교육에서 창업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지원하는 시제품 제작 및 기업가 간 교류 여건을 갖춘 인프라 구축을 시범 사업으로 고려

□ 현지 인력 육성을 통한 현지 및 국내 중소기업 인적역량 강화

- 산업구조 고도화와 생산성 증가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교육 수준 뿐 아니라 연구개발과 경영관리를 담당할 고급인재의 육성이 필요하지만, 아세안 지역은 해당 부문에서 약점을 보이고 있음(정연우 외. 2020)

- 아세안 지역의 경우 전반적인 교육 수준은 높으나, 현지 진출 기업 및 국내 대학들은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최상위 인재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현지 투자의 파급효과가 적은 이유로 전반적 교육수준의 부족보다는 관리 자급 인력의 역량 부족을 지적(곽성일 외. 2022)

- 인구 전반의 교육수준 향상과 연구개발(R&D) 육성을 동시 달성한 우리나라의 경험을 살려 다층적인 인적자본 육성 전략 수립을 돕고, 한국으로의 유학, 현지에서 베트남 VKIST와 같은 연구 중심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여 최상급 인재 육성

- 신산업에서 필요한 직종 및 역량을 집중 육성하고, 한국으로의 유학생 중 우수인력에 대해 현업으로의 진입을 지원하여 교육-산업 연계 모델을 확립
 - 우리나라의 글로벌 대기업이 진출한 지역의 경우 근로자 역량 개발 및 중소기업의 경영능력 배양 등에서 민간부문이 설계 및 운영에 참여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곽성일, 조승진, 정재완, 이재호, 신민금, 박나연, 김소은 『아세안의 중장기 통상전략과 한-아세안 협력 방안』, 중장기통상전략연구 22-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
- 관계부처합동(23.08.30), 글로벌 창업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2023. 11. 27.),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 전략(안)」.
- 국제금융센터 (2020), “볼커룰(Volcker rule) 주요 개정내용 및 평가”
- 김영환(2024. 6. 12.), 「혁신 국가, 덴마크: 덴마크 혁신생태계 특징과 시사점」, 『STEPI Insight』, 제324호, STEPI.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 진출 스타트업 현황 조사 결과”
- 산업통상자원부(2023. 12.),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안)」.
- 삼정 KPMG (2014), “미국 ‘볼커룰’ 현황 및 시사점”
- 서주원(2023. 8. 10.), 「국제공동 R&D 소개 및 제언」, 중소기업 혁신 네트워크 포럼 (글로벌 연계·정책분과).
- 인도네시아 산업부 『Making Indonesia 4.0』, 2018
- 임덕순, 김왕동, 김지현, 김은주, 김지선, 강신애 『「2022년도 한-인니 산업혁신 연구협력사업」 공동연구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인도네시아 디지털센터 PIDI 4.0 발전전략 자문연구 II』,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2
- 장호식 (2023), “한인 스타트업 기업에 답을 묻다-신한금융그룹, 해외 한인 스타트업 기업 투자 현황”
- 전호진 (2023), “한인 스타트업 기업에 답을 묻다-해외 벤처기업 투자방안”
- 정연우, 성장환, 최대식, 유종훈 『베트남 산업단지개발 진출전략 수립』, 연구지원 2018-137호, 토지주택연구원, 2018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3. 8. 24.), 「민간주도 기술개발(R&D) 생태계 혁신 선

도, ‘스케일업 팁스 네트워킹 행사(운영사+선정기업)’ 개최」.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4.02.20.),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국경을 넘어 세계(글로벌) 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2024.05.08.), “중소벤처기업 수출 성장과 해외진출 확실히 이끈다”

진형석(2024), 「스타트업 수출 현황 및 수출 활성화 정책 제언」, 『TRADE FOCUS』, 21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창업진흥원(2023),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관련 규제애로 현황 및 개선방안”

코리아스타트업센터(<https://k-startupcenter.org/>)

한국경제(2023.4.4.), “SVB에 놀란 바이든, 은행규제 다시 조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3),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Digital Today (2021), “[디지털피디아] 볼커룰(Volcker Rule),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0005>

KOTRA 보도자료(2023.01.27.), “해외진출 스타트업 절반, ‘처음부터 해외에서 창업했다’ ”

KOTRA 보도자료(2022.01.26.), “해외 진출 스타트업 46%, 글로벌 서비스 론칭하러 ‘해외로’ ”

[외국 문헌]

USAID (2017). *Promoting The Digital Economy In The ASEAN And APEC Regions*.